

회 장 인 사



협회회장 정 태 한

웃짓을 여미는 꽃샘추위 사이로 찾아오는 봄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. 겨우 내한껏 움츠러들었던 만물에 봄의 기운이 깃들면 곧 이 세상은 생동함으로 가득찰 것입니다.

2005년의 경영환경은 혹독한 겨울을 실감케 했습니다. 사상 최악의 유가상승에 따른 급격한 원재료비 증가와 위축된 경기로 인해 2001~2004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5% 가량 증가해 온 윤활유 국내 총 판매량이 1% 미만으로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. 어려운 상황은 생존 경쟁으로까지 이어져 업계 전체가 커다란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.

하지만 업계의 결집된 노력으로 이루어낸 환경 친화적인 제품, Emission 저감 기술, Top-Tier 제품의 출시 등은 한국 윤활유 산업의 기술력을 입증하였고, 이는 침체된 국내 경기를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해 적극적으로 극복

해보고자 하는 의지의 발현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. 또한 세계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힘을 얻어갈수록, 그 속에서 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수 있습니다.

그 동안 협회를 통하여 윤활유업계의 의견을 조율하고, 공동의 관심사와 번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틀을 마련해왔다고 생각합니다. 협회회장으로서 윤활유업계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해갈 것이며, 특히 2006년은 봄처럼 생동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추운 겨울을 보내고 새 봄을 맞는 것처럼 윤활유 산업도 기지개를 펼 수 있도록 업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아울러 회원사 여러분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.